

<자기소개서>

저는 세계 IT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후발국가에 매년 500 명의 대학생들을 파견하는 '월드프렌즈 IT 봉사단 사무국'에서 4 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첫째, 봉사단 홍보를 통한 지원자 수 확보입니다. 국내 100 여 개 대학교의 대외협력부서를 상대로 봉사단을 소개한 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봉사단 홍보 게시물 업로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문 조직을 갖춘 대규모 해외 봉사단은 물론, 일반 기업체 프로그램도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상황에서 저희 팀의 매일매일은 속도와 완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하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주일간은 홍보를 통한 게시 건수가 5%도 채 되지 않았고 돌아오는 건 담당자들의 외면과 짜증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역할을 통해 내가 속한 곳을 조금 더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냈습니다.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후, 각 대학별로 역대 봉사단원의 파견정보가 담긴 내부 DB 를 참고해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바탕으로 홍보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홍보 게시물 건수를 약 53%까지 끌어올렸고 그 해 봉사단 서류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홍보 톨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고객 니즈, 예측 가능한 변수 등에 대한 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양교육 프로그램에서 행정 서류를 관리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을 리스트업 한 뒤 기재 누락이나 증빙서류 미비의 경우 재요청하여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습니다. 또한, 발급의 목적과 요청에 따라 소양교육 수료증, 파견예정증명서, 파견확인증 등 각종 발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25 개국으로 파견될 총 80 팀의 출국일정을 관리하며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렀습니다. 나담 축제, 라마단 기간과 같은 각국의 기념일과 현지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 봉사단원들의 파견일정을 조율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부가 서비스들의 발효일이 그 파견일정에 맞춰 세팅된 터라, 그때마다 봉사단원 DB 업데이트는 물론, 보험사와 여행사에 변경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수시로 봉사단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변경 사실을 수정, 이를 다시 팀원들과 공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25 개국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 320 명의 대학생, 4 곳의 협력기관 담당자들과 원활히 협업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마침내 80 팀 전원을 각국으로 무사히 파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불확실한 환경에 당황하지 않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회원사에겐 신뢰를, 한국 AEO 진흥협회엔 가시적 성과 창출로 이바지하겠습니다.